



# 평화의 도구

제 177 호

2008년 5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부회장 : 음광인 아오스딩 sfo 562-902-1585  
 서 기 : 김창순 데레사 sfo 714-447-0504  
 회 계 : 홍병숙 올리안나 sfo 714-522-0675  
 양 성 : 김영배 요한 sfo 714-447-8890  
 평의회원보조 : 김재련 안젤라 sfo 562-694-1919  
 평의회: 매월 첫째 일요일 12시 30분  
 성토마스 성당 8호실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형제회 소식

### ▶ 입회식 및 서약식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의 입회식과 콜베형제회의 서약식이 오는 7월20일(일)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월례회 중에 성 토마스 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의 성녀 글라라 형제회와 샌디에고의 성 디에고 형제회는 지난 5월17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토랜스 소재 곤벤뚜알 수도회에서 윤종일 디도, OFM conv. 신부(한국 성모기사회 지도신부) 지도하에 피정을 가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토랜스 소재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주임신부 이신 이태영 마리아요셉, OFM conv. 신부님을 모시고 각 형제회의 회장 주관하에 입회식 및 서약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 가톨릭 워커 무숙자 봉사

매월 첫째주 일요일 8시 30분경 부터 준비를 시작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2페이지 참조)

주소: 316 Cypress Ave, Santa Ana

\*자세한 문의 : 평의회원

### ▶ 제8차 북남미 봉사자 연수회

일시: 2008년 7월 31일(목)

- 8월 3일(일) 3박 4일

장소: Serra Retreat Center

3041 Serra Rd.,

Malibu, CA 90265

주관: LA 형제회

문의: 평의회원 (참가신청은 지난 5월 10일자로 마감하였습니다.)

### ▶ 형제회 15년사 출판 기념식 및 설립 15주년 기념미사

4월 20일(일)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설립 15주년 기념미사 및 형제회 15년사 출판 기념식이 성토마스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2페이지 참조)

### ▶ 국제형제회 총회를 위한 기도

국제 평의회 회장단에서 12차 국제형제회 총회 및 5차 선거총회 결정 소식을 보내 왔 습 니 다 . 2008년 11월 15일에서 22일 까지 헝가리에서 “재속 프란치스코의 서약과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수호성녀 엘리사벳 성녀 탄생(1207년 탄생) 800주년 기념 2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에 국제평의회 회장단은 총회를 준비하며 세계 모든 단위형제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며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마음을 열고 기도를 통하여 공동 책임감과 일치감을 느끼도록 특별히 마련한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국제형제회 총회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첨부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은 3 페이지)

### ▶ 컵은 각자 준비하기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자신의 컵은 각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월 식사준비

제5구역

최두영 막시미노 윤성민 도미니코  
 정희영 리디아 권연경 마리아  
 권세경 카타리나

▶ 6월은 제 6구역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5월 3일	박영재 요왕
5월 15일	유근숙 올리아
5월 17일	남수정 요안나
5월 24일	이세홍 바오로
5월 30일	최화자 안젤라

### ▶ 기부금

4월 20일(일) 형제회 설립 1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도네이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림 막달레나, 곽춘무 데레사  
 이규성 바오로, 이명순 글라라  
 정치영 요한보스코, 이정수 데레사  
 배종두 미카엘, 루케치오 형제회  
 콜베형제회, LA형제회



## 따뜻한 손길 가톨릭워커 무숙자 봉사

(새로 단장한 가톨릭워커 전경)

산타아나 소재 가톨릭 워커는 지난 6개월 간의 내부 공사를 거쳐 무숙자들이 좀더 마음놓고 머물수 있는 공간으로 산뜻한 단장을 끝내고 지난 5월4일(일) 급식제공을 재개 하였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에서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매월 1회 이곳에서 봉사를 해 왔으며 2005년 중반 부터는 성토마스 성당소속 평화의 모후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매월 첫째 주일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중반 부터는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우리의 고유음식인 불고기 정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불고기 정식은 무숙자들에게 대단한 인기 품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4일(일)에는 25명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불고기와 샐러드를 만들고 과일과 함께 서비스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넉넉한 손들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사관계로 급식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한 첫날이라서 무숙자들에게 전달이 덜 된것 같았지만 뒤 늦게 알고 달려온 무숙자들도 많이 있었으며 싸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재 힐라리오, 김영배 요한, 남기성 프란치스코, 남연정 안젤라, 박승호 바오로, 정치영 요한보스코, 이세훈 바오로, 음광인 아오스딩, 홍병숙 율리안나, 최두영 맥스, 최크리스티나, 유근숙 율리아 (이상 재속회 12명), 남스테파노, 남아가다, 이요셉, 박베드로, 조미카엘, 최벨라멧다, 오요세피나, 김분도(이상 레지오단원 8명), 김가현 안드레아, 이지민 유스티나, 이정민 안젤라, 김안토니오(이상 학생 4명), 김희동형제 (한국에서 방문오신분)

열심히 봉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업중] 한쪽에서는 미리 준비해 온 불고기를 열심히 볶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야채들을 썰고 있는 모습들

## 형제회 설립15주년 기념및 출판 기념식



지난 4월20일(일) 본 형제회는 설립15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미사및 출판기념식을 성토마스 성당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약 130여명이 참석한 이 기념식에서 김재섭 마리비안네 OFM 신부님과 이영신 마르띠노 OFM conv. 수사님께서 내빈 축사를 해 주셨고, 출판의 아이디어를 내신 이병재 힐라리오 전 회장님은 출판 동기에 관하여, 15년사 편집위원장인 박승호 바오로 형제님은 출판 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규성 바오로형제님은 그동안의 형제회 발자취를 시청각으로 보며 회상해 볼 수 있도록 650장 가량의 사진들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여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위원들중 2명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하였으며 끝으로 김재섭 마리비안네 신부님께서 기념 미사를 집전하여 주셨습니다. 성토마스 본당주임이신 김기현 알렉스 신부님께서도 미사전 잠시 방문하여 출판기념식및 설립15주년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미사후에는 15년사 책자를 각 형제회에 배분하여 선물로 드렸습니다.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축하를 해주신 Rock 지구형제회장님, 성 디에고 형제회, 밸리 형제회, LA 형제회, 루게치오 형제회, 콜베 형제회, RH 성녀 글라라 형제회, WM 성녀 글라라 형제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왼쪽 위] 설립15주년 기념미사(김재섭 마리비안네 신부 집전)  
[오른쪽 위] 내빈축사-이영신 마르띠노수사  
[왼쪽 아래] 공로패 수여 (박용원 야고보, 유근숙 율리아)  
[오른쪽 아래] 출판과정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회원님들



## 성 프란치스코 영성



### 사치를 피하고

**옷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궁핍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덕성을 받은 성 프란치스코는 걸치레 옷보다 내적 성화로 몸을 뜨겁게 하였다. 세 벌의 수도복을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좋은 옷을 입는 수도회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성(理性) 때문이 아니라 쾌락에 대한 애착 때문에 생기는 어떤 욕망도 영성이 죽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영성이 미지근해지고 내적 감사로움이 식으면 육체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 말했다. “영적 환희에 대한 욕망이 결여되면 육체는 욕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값싼 욕망도 필요하다고 변명하나, 육욕은 양심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형제든지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을 만족하려고 서두른다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공덕을 쌓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원의가 없음을 이미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형제들이 수도복에 형겅천으로 안을 대고 입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복 두 벌 이상은 결코 갖지 않기를 바랐다. 상류급 옷감은 질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호되게 나무랐다. 자기 몸소 솔선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그는 항상 거친 삼베천으로 자기 수도복을 수선해 입었다. 이 때문에 그가 죽을 때에도 자기 수의를 삼베로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형제든지 병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다른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할 때 겉옷이 너무 남루하고 조잡하면 겉옷 안에 부드러운 옷을 껴입도록 허락하였다.

“앞으로는 엄격함이 크게 완화될 것이고 회칙이 소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므로 가련한 사부의 아들들은 빗줄을 바꾸어 추후색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몹시 탄식하며 말했다.

## 국제형제회 총회를 위한 기도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저희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심과  
프란치스칸 성소를 커다란 선물로 주심에  
찬미 드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헝가리에서 있게 될 총회를 준비하는  
모든 재속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을  
당신 친히 이끌어 주소서.**

**총회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어  
다가오는 6년간  
재속회에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당신께서 원하시는대로 우리를 이끌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도록 봉사할  
형제자매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복음과 외식을  
보다 더 잘 따르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어  
당신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재건하는데  
협력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우리의 거룩한 수호자이신 성녀 엘리사벳과  
성 루도비코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령은 나의 희망

### L.J. 수에넨스 추기경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는 유행병과도 같이 날로 번져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슬픔에 잠겨 있다. 슬픔은 그리스도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냐는 그가 진정 희망하는 인간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품고 있는 희망의 이유를 매순간 다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까지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다(1베도 3, 15). 희망은 진정 우리 존재 자체의 중대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란 의심스러운 그 무엇이다.

### 그리스도교는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이 지니는 품위를 복구하고, 그 희망이 차지하는 중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데는 매우 중대한 이유가 있다. **희망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향주덕(向主德)이기 때문이다. 향주덕이란 하나님께만 도움을 바라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힘과 기운을 의미한다.** 이같은 희망은 우리의 통계수치와 개연성을 측정하는 인간의 계산과 미래학을 아예 비롯어 버린다. 희망은 우리의 예견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들은 나의 생각들이 아니요, 또 나의 길들도 너희의 길들이 아니다”(이사 55,8) 라고 말씀하셨다. 희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주인이시요”, “굽은 선을 가지고서도 바르게 쓰시는 분”이시다. ....종락.....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같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은 희망하는 인간으로 자처하고 있습니까?” 라는 어느 미국 잡지사 편집인의 질문에 대한 수에넨스 추기경님의 편지를 그 잡지사 편집인은 잡지의 표지에 실었는데 다음은 그중 일부분이다.]

## 어떻게 희망하는 인간일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느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이 순간에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짙은 안개 속 먼 과거에 잊혀진 분이 아니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님을 만날 준비를 차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일은 바로 섭리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결정론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측을 뒤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밖의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기가 나의 희망이 샘솟는 물을 만나는 곳입니다.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이나 타고난 낙천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세상이 알거나 모르거나 나의 희망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께서 영원토록 창조하시는 영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성령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이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신뢰와 기쁨이라는 생명의 뭍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의 역사가 장구한 역사이며 성령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차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과 무수히 많은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암흑의 때에 맞추어 나서 은총의 위대한 도구로 쓰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공상에 들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감히 꿈꾸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서, 아니 그들의 꿈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값진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 칸탈리체의 성 펠릭스 수도자 (1회) (1515-1587)

기념일: 5월 18일



성 펠릭스는 1515년 이탈리아 칸탈리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비천한 목동으로 생활하였다. 28 세가 되던 해 황소 떼가 도망치는 사건을 겪고 난 후 뜻한 바가 있어서 카푸친회에 평형제로서 입회하였다. 그는 깊은 신앙심과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데에 뛰어났다. 그는 가끔 복되신 성모님 품 안에서 어린 구세주를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한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느님께 감사(DEO GRATIAS)!" 라는 말이 떨어질 줄을 모르므로 "데오 그라티아스 형제" 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42 년 동안 로마에 있는 수도원에서 애굽 생활을 하였다. 그 덕분에 성 필립보 네리와 성 가를로 보로메오와 막역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많은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그에게 영적인 문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가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기쁨으로 가득찬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1587 년 로마에서 선종하였고 1712 년 시성되었다.